

2010 楊州비전 집행 위한 공무원 교육

‘왜 시민과 함께 하는가’ 등 실천 교육으로 리더쉽 구축

양주시는 시민이 만드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양주비전 2010’ 집행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선4기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인 2010 양주비전 실행을 위한 공무원들의 계획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추진할 6개 분야 166개 세부 단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2010 양주비전을 작성한 비전연구단 대표(대진대학교 허훈) 교수를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양주시의 장래를 향한 비전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는 중요한 회의 성격의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 왜 시민과 함께 하는가 ▶ 어떻게 양주비전2010을 만들었는가 ▶ 어떻게 양주비전2010을 활용해야 하는가 ▶ 시민과는 어떻게 일하는가 등의 주제를 가지고 실시했다.



양주시는 시민이 만드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양주비전 2010’ 집행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 민선4기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인 2010 양주비전 실행을 위한 공무원들의 계획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추진할 6개 분야 166개 세부 단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2010 양주비전을 작성한 비전연구단 대표인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를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

허훈 교수는 왜 시민과 함께 하는가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며, 시민을 분해하여 보면 일의 성격에 따라 대응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고, 공직자, 시민,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계획 만들기, 리더쉽의 요청과 기대 등 양주비전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양주비전 2010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와 시민과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하여는 요령 있게 일하는 방법,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보다 행정의 종합과 양주에 맞는 양주다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

고 말하고 일본의 지방자치체를 바꾸고 있는 가케가와현의 지방메니페스트에 대해 예를 들어가며 교육을 했다. 양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공직자가 우선 술선수

범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는 양주비전 2010의 실천 방향을 모색 양주다운 것을 추구 실천해 가는 공무원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양주시 은현면 운암1리 경로당 준공식

양주시 은현면 운암1리 경로당 준공식이 10월20일 임충빈 양주시장과 원대식 의원, 마을주민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운암1리 경로당은 은현면 운암리 156-1번지 168평 부지에 연면적 69평의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신축했으며, 총사업비 2억4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 착공 후 6개월만에 준공식을 갖게 됐다. 건물용도는 1층 경로당, 2층 건강관리실로 되어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국섬유소재 가공연구소 개소식

양주시는 10월23일 임충빈 양주시장, 이태용 산업자원부 기간제조사업본부장, 권두현 경기도행정2부지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한국섬유소재 가공연구소는 섬유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체를 잇는 섬유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을 융합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골프, 미군과 영어로 공부

가고싶은 학교 상패초교 보고회

양주시 상패초등학교(교장 정규수)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돌아오는 농촌학교 시범운영 보고회를 10월 24일 개최했다.

시설여건 개선 사업으로 운동장 전체를 활용한 원형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장거리 연습까지 가능한 골프장, 다목적실을 활용한 배드민턴장, 꿈동산의 잔디밭에는 연못과 원두막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쉬면서 학습 할 수 있는 자연 학습 공간을 마련했다.

또 특별실에 사이버 칠판과 최첨단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 편의를 위해 통학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1층 3실의 교사 사택을 만들어 교사가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학력 향상을 위해 한자, 영어,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습자료 개발을 하였으며 매달 급수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력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아동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초등학생 생활안정 능력 검정시험에서 140명이 급수 이수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또한 방과 후 아동의 특기적성 신장을 위하여 골프, 중국어, 사물, 바이올린, 컴퓨터, 킥박스, 스포츠댄스, 리코더, 민요부를 운영했으며 장미 축제 발표회를 갖기도 하였다.

그 결과 사물부는 2005년도 양주시 주회 청소년 예술제에서 최우수상, 바이올린부는 동두천양주예술경연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다.

또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지원활동을 위해 학부모 설명회,

학부모와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인 골프반을 조직하여 하루 평균 20여명이 골프 연습을 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5년 전부터 미 2사단 미군 장병을 활용한 생활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매주 목요일 5교시에 미군 7명, 보조교사 카투사 7명이 와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랜드, 진방, 강릉수목원 견학 등 체험학습을 미군과 같이 하고 있어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미군포대 참군기념일에 전학년이 초대받아 군대 견학을 하였으며 학교 예술제인 장미 축제와 학생 체육대회 때 놀이 활동을 함께 했다.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클로스로서 변장하여 특별한 이벤트 행사가 벌어지고 하는 등 활발한 학습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최철찬 시설과 최고의 쾌적한 학습 공간에서 친구와 같이 마음껏 어울려 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Clean 65 연극제’ 육군 65사단



육군 65사단은 10월19일 사단강당에서 사단장 주관으로 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Clean 65 연극제’를 열었고, 후임병들이 서로의 입장과 심정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상호 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 혁신과 병영생활간악·폐습 척결을 위해 열리게 된 이번 연극제는 연대와 직할대에서 총 6개팀이 참가해 2시간 동안 병사들 스스로 준비한 공연을 펼쳐 참석한 전 장병들에게 웃음은 물론 진한 감동과 교훈을 안겨 주었다.

제25보병사단 가족·친구·애인에게 개방



면회와 민간인 출입이 힘든 최전방. 이곳 장병들은 누구보다 가족과 애인,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25사단에서 가족 초청행사를 가져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육군 제25사단 자살보대대는 장병 사기 진작 및 대군신뢰도 증진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가족초청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신성한 가족들 모두가 초청되어 120여 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부대에서 전투모와 전투복 상의를 제공해 자식, 친구들과의 차별화와 주 5일제 실시로 늘어난 여가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東豆川로타리클럽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동두천로타리클럽(회장 이구성)은 24일 신시가지 게이트볼장에서 제3회 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게이트볼대회는 동두천 관내 8개 팀이 참여해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동두천로타리클럽 이구성 회장은 “오늘 경기에 참여한 여러분을 비롯해 노년기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게이트볼 운동으로 각자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에 따른 워크숍

연천군은 24일 본관 2층 상강실에서 김규배 군수, 의회의원, 전문가, 농협, 실과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하스파크 조성에 따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로하스파크 조성 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우선협상 대상기업인 (주)메텔이 공동 참여하는 최종 협상 전, 심도 있는 토론을 갖고 사업목적의 조기달성과 효율적인 법인 설립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육군 28사단 보훈단체장 초청 행사

동두천시 보훈단체 유대활동 강화

육군 28사단은 10월18일 오전 사단장 주관으로 의정부보훈지청과 동두천 상이군경회장,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관내 보훈단체장 11명을 사단

사람부에 초청해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육군 주간(Army Week)행사 일환으로 선배전투들의 회생에 다소나마 보답하기 위해 마

련됐으며 부대소개와 환담, 부대역사관 및 신축 병영 생활관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훈단체장들은 부대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관을 둘러보며 창설 이래 정예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사단의 활동상을 확인했으며 최근 완공한 대대급 신축 병영 생활관을

견학하면서 획기적으로 변화된 병영생활 환경에 감탄하기도 했다. 동두천 상이군경회 이영준 회장은 “부대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 너무 고맙다”며 “부대장병들의 눈빛과 예전에 비해 개선된 병영환경을 보니 실로 마음이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단장은 “동두천에 거주하시는 선배님들을 부대로 모셔서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사단 전 장병은 선배님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내신 이 나라를 위해 중서부전선 방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쾌적하고 아름다운 연천’ 建設

김규배 연천군수 취임 100일 군정 청사진



김규배 연천군수(사진)는 민선4기 제35대 연천군수로 취임 100일 동안 21세기 인간·환경·풍일중심의 역동하는 연천건설을 위해 봉사행정, 경제회생, 지역개발, 문화진흥 균형발전 아래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으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연천’을 만드는 데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취임 후 10개 읍·면의 당면 현안사항과 군내 전지역을 방문하면서 각계 계층별로 민원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각종 민원현장 및 크고 작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군정을 수행해 왔다. 지난 9월8일 개최한 제38회 연천

군민의 날 행사 및 전야제로 열린 연천가요제를 통해 군민이 하나 될 수 있는 특성화된 화합의 장 행사를 치러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특히, 군정시책 추진사업인 고대산평화체험특구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직접방문하고 건의한 결과 지난9월12일에는 재정경제부 제9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가 신규지역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임진강 댐 건설과 관련해 30년 이상 경각한 땅에서 영농손실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있는 농민들의 보상을 위해 지난 7월25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수자원공사와 현장 조정중재로 주민 약70세대가 총 규모 24억원 가량의 농업 손실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사시킨 바 있다.

또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경기도 북부의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규제

를 완화하도록 촉구해온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연천군이 포천시와 함께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포함 시키는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민선3기 4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룩해 놓은 연천군 핵심 동력인 선사유적지 권역 5대 관광벨트와 사업, 선사유적지와 한탄강을 연계한 테마관광 권역화로 통일시대 수도권 지역의 관광 거점도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고품격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로하스연천 3대 역점사업으로 로하스파크 조성 사업, 고대산 종합개발사업, 임진강 북방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을 경륜과 열정을 바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역과의 차별화와 주 5일제 실시로 늘어난 여가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관광 산업으로 집중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